

## 각계 인사 2,721명, ‘2009 교육선언’ 선포 283개 단체 동참... ‘MB 교육’ 전면 전환 요구

정부의 일제고사 강행 및 3분 정책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전교조, 교수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283개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09 교육선언’을 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난하고,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MB 교육 전면 요구

각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회전에서 발표한 교육선언을 통해 “이제 우리 국민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서열화 정책, 교육 불평등 정책 등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 단체, 학부모, 학생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본산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교육의 ‘시장화’ 정책이 지닌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유연한 정책기조로 선회하고 있다”며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식은 정답 찾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기능을 갖추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교육과 경쟁주의로 무너져가는 교육현실 속에서, 한국 교육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실천 전략을 바꿔가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선 양질의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는 시장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은 상품이 될 수 없다.**

“학교는 시장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은 상품이 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근본 가치와 철학을 되찾아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자본에서 인간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180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

혔다.

이들은 이어 “학교는 국가 통제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학교 현장으로 대폭 위임되고,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권과 평가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교육행정 체제는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원하는 협동적인 행정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에게는 교육과정 운영권과 평가권을 되돌려주어야 한다”며 “교육행정 체제를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원하는 협동적 행정 체계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등 계획

더불어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4월 말경 이명박 정부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지역적, 전국적 선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참석자 100여 명이 노란색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상징의식을 벌이던 중, 주변에 서있던 경찰들이 풍선을 빼앗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양 측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 불법찬조금근절 위해 걷지도 내지도 맙시다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 모금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학교 부조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나 기자재 비용, 체육이나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지원 등은 학교 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불법찬조금을 걷어서도 내서도 안됩니다. 불법찬조금 근절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속에서 학교 신뢰를 바탕으로 내 아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됩니다. 불법찬조금을 학교에서 강요하여 어려우실때 참교육학부모로 문의해주세요.

### 불법찬조금 상담 센터

• 전화 \_ 02)393-8980

• 팩스 \_ 02)393-9110

• 홈페이지 \_ <http://www.hakbumo.or.kr>

(참교육학부모회 → 학부모상담실 → 불법찬조금)

• E-mail \_ [hakbumo@chol.com](mailto:hakbumo@chol.com)

♥비밀상담 가능합니다.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때 제보자 신원은 보호되며 학교이름과 불법찬조금 징수 경위를 정확하게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3.02 [성명] 일제고사 '연기가 해결책이 아니다. 일제고사를 폐지 하라!!'

3.07 [성명] 징역 6개월 구형, 공정택 교육감은 책임자고 사퇴하라

3.11 [성명] 대학 입시 업무에 무능력한 대교협은 자진 해체하고 대입제도 개선에 교과부가 적극 개입하라

3.12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대안 마련을 위한 '2009 교육선언'

3.16 [보도자료]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 유출 관련 수사 의뢰

3.20 [기자회견문] 소청심사위원결정은 교육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는 정치적 결정이며, 그 어떤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폭압이다

3.20 [성명서] 성적으로 한줄 세우는 수능 성적 공개, 즉각 중단하라

### 이달의 주요기사

02 아름다운 학교문화만들기  
학생자치활동

04 교육자치  
결산심의 이렇게 합시다

06 특집  
교육평가와 학습부진아 대책

10 사람향기 바람따라  
비잔틴의 돔, 신을 희

12 지부지회 소모임  
광양지회(준), 아름다운 변화의 가능성

13 언론정보출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1회 불법천조금 없는 학교 문화 만들기  
2회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 가정방문, 편지보내기  
3회 학년말 책거리 행사와 함께 스승의 날을 치루자  
4회 새로운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의 모색  
5회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생활이다

6회 자원봉사가 나아갈 길  
7회 운동회  
8회 모범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  
9회 모범적인 학급운영과 동아리 활동  
10회 학부모의 학교참여

11회 학교를 알면 자녀 교육이 보인다  
12회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13회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14회 급훈  
15회 학교급식

16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17회 체험학습  
18회 바람직한 대학진학의 길  
19회 한글날 특집  
20회 지자체의 학교지원

21회 바람직한 청소년 인성지도  
22회 다양한 겨울방학 보내기  
23회 일제고사가 뭐길래?  
24회 학교운영위원회  
**25회 학생자치활동**

## 학생 자치 활동으로 학교가 아름답게 되도록, 나의 자녀를 격려하자



요즘 여러 운동 중에서 뜨고 있는 것이 108배 운동이다. 이 108배를 더 의미 있게 하도록 절의 의미를 나름대로 제공하기도 한다. 어느 수행단체에서 만든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절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며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자녀를 어느 방향으로 키웠으면 하면서 보내는 것일까? 가장 큰 방향이나 목적은 남들과 어울려 잘 그리고 바르게 살라는 뜻에서 보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이념으로 제시하는 홍익인간 이념,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 자질 형성 등은 모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얻고 확인하고 개선되는 것이다. 학교의 모든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부하고 논의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다 중요한 활동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학생에게서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학급에서 청소하는 것, 점심 식사를 하는 것, 환경 미화하는 것, 소풍가고 학생 훈련가는 것, 학교 발표회 및 축제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학급과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논의하고 준비하는 활동은 학급이나 학생회 자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있어야 학급 학생이나 전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학급 그리고 학교 운영이 이루어진다. 세상사가 의례 그렇듯이 관련된 변수가 매우 많아 학생들의 의견만으로 학교 일이 결정되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 경우들도 많다. 예를 들어 학급 좌석 배치에

서 학생들은 짝을 지어 앉자고 하는데, 선생님은 짝을 지어 앉으면 옆 사람과 떠드니까 일렬로 혼자씩 앉아야 한다고 하면서 좌석 배치를 담임 교사의 뜻에 따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일이 몇 차례 거듭되면 학생들은 '뭐 우리 의견을 제시하여 보아도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학생 자치는 의미가 없고 자치를 실현할 공간도 없어요.' 하면서 주장할 수 있고, 부모님도 그 말에 따라 그래 학생 자치는 중요하지 않은 요식적인 행위일 뿐이야 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한 집단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은가? 어느 교장 선생님은 '교장이 되어 보니까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시작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면서 무력감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마음을 약간 달리 먹으면 상황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학급의 회장이나 부회장이 되어 학급의 환경 미화 때 뒤 벽면에 예쁜 그림을 붙이자고 할 수도 있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남아서 격언을 써서 붙여 학급 분위기를 나름대로 조성할 수도 있다. 또 교실 청소를 깨끗이 하여 우리 교실과 복도를 천국과 같이 청결한 장소로 만들자고 학급회의 시간에 의견을 모을 수 있고 친구들과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옆의 학급도 이를 흉내 내어 점차 학교가 깨끗해 질 것이다.

학급만이 아니라 회장, 부회장이 되면 학생회의 대의원이 되어 대의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학교 축제와 발표회, 체육회, 소풍,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요즘 학교의 많은 부분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쇼생크 탈출'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은 정부에 교도소의 도서관 설치를 청원하는 편지를 수년간 보내 드디어 책을 얻고 교도소 도서관을 개설하는 장면이 나온다. 교도소에서 하는 일을 학교에서 못 할리는 없다. 그 학교를 보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사의 성향이 드러난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그곳에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느님이 약속을 한다. 그런데 그러질 못해서 그 곳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역사상 한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적응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어느 학교에서 교실 환경이 지저분하다고 하고, 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불 일을 보러 갈 수가 없다고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서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고 한다. 누구의 책임일까? 중앙정부, 교육청,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경제 상황 등 책임을 저야할 단위는 많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 장을 설 수 있는 주체도 마찬가지로 많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맞물려 영향을 주므로 한 두 주체가 앞장서서 모범 활동을 하는 것이 앞뒤로 영향을 주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회를 보다 좋게 발전시키려면 사회 발전의 계기와 발전 과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한 번에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훈련을 통하여 길러지는 것이며 이 훈련은 가정생활, 학급과 학교생활, 지역 사회 활동, 시민 단체, 정당 등등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점차 길러지고 강화되고 수준이 높아진다.

요즘 주변에서 맹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학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였거나 클럽 활동을 한 사람이 많음을 본다. 교회, 절 등에서 종교 활동을 잘 수행하신 분들도 있다. 초·중·고 시절의 학급 활동과 학교 활동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회 활동가로 발전할 수 있는 자질은 많은 부분이 이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초중고에서 활동한 친구가 대학에서 활동하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앞장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너도 나도 학급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그려보자. 그래서 교실이 더러워졌을 때, 학급 회의에서 이러저러해서 더러워졌으니 이런 방법으로 청소를 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 깨끗한 학급을 만들자고 발표하며 논의 하

는 모습을 그려보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러한 활동이 학급을 아름답게 만들고 학교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학급과 학교에서의 학생 활동에 대하여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격려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것이다.

전국사회교사모임 부회장 천희완

### 의미 있는 학생회 활동 사례

#### ▷ 충남 예산여고 학생회 사례

"선생님 심부름만 하는 반장, 이젠 아니에요" "작년부터 인터넷에 학생회 카페를 만들고 '학교생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교실 텔레비전 전원을 시도 때도 없이 켜는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 급식실에서는 줄을 잘 서자... 아이들의 의견이 올라오더군요. 그 내용을 만화 동아리 친구들에게 부탁해 포스터로 그리고 모든 교실 뒤에 게시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교육희망 2005년 3월27일 기사 인용)

#### ▷ 서울 영등포여고 사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생용의·복장규정을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냈다.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학급회의를 거쳐 다시 학급반장과 부반장들이 참여하는 대의원회의에서 변경안을 조정했다. 그리고 규정 외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학교급식 관련사항은 영양사와 직접 상의한다. (교육희망 2005년 10월 22일 기사 인용)

# 반장, 그것

반장.  
나에게는 꽤 가까운 의미였다. 초등학교 시절, 앞에 나서 무언가 하기를 좋아했던 나는 항상반장을 하겠다며 나섰다. 엄마의 반대에 망설이다가도 곧 꺾끗하게 1학년 때 부터 5학년 까지 반장 혹은 부반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6학년 때 부터인가, 서서히 반장이라는 것의 '단점'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면서 난 반장을 포기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의 눈에 비친 반장은 반에서 선생님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였다. 선생님이 반장에게 ‘칠판에 떠든 사람 이름을 적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떠든 사람을 반장이 적으면 그 아이는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았다.  
반장은 곧 선생님이었고 반장이 이름을

적으러 앞에 나오면 아이들은 조용해졌다. 난 그런 점이 참 좋았다. 언제나 선생님은 항상 이름이 적히면 반성하고 열심히 할 것이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난, 아무렴 상관없었다. 그 땐 그냥 이름 적는 게 내 직업인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난 고학년이 되었다. 어렸을 때 그저 즐겁기만 했던 '이름적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름을 적을 때, 반 아이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거다. 친한 친구들은 떠들어도 서서히 그 애들의 이름은 적지 않았고, 반에서 좀 힘이 쎈 남자애들은 나중에 뭐라고 할까봐 적을 수가 없었다. 아무도 칠판에 적지 않았는데 반이 시끄러우면 반장이 선생님에게 혼나고, 어떤 애를 적으면 내가 그 애의 눈빛을 견디지

못했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 후반기의 일이었다. 그리고 진학하여 6학년이 된 나는, 반장을 포기했다. 중학생이 되고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장은 ‘돈 드는 쓸모없는 거'와 ‘내신점수'가 되어버렸다. 어렸을 때 우리엄마를 비롯한 부모님들이 반장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대부분의 이유가 어찌 보면 너무 아깝게 돈 낭비를 해서인데, 그래도 그 땐 아이들 중 아무도 반장을 돈 드는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반장 후보는,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2명 있으면 다행인 것이 되어버렸고 자연스럽게 투표는 자취를 감췄다. 지원자가 없으니, 그제 누구든 간에 ‘아무나’ 하는 게 바로 ‘반장’이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이름적기는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반의 반장, 부반장은 일주일 씩 번갈아가며 청소감독을 한다. 그리고 각 과목 담당 선생님들은 대

부분 반장에게 ‘과목부장’을 시켜 잡 일을 시킨다. 별로 힘들거 같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막상 그 일을 하는 본인에게 물어 보면 짜증나고 정말 하기 싫다고 말한다. 혹시 “난 반을 이끌어가는 반장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진심으로 궁금하다.  
이젠 더 이상 반장은 ‘권력자’가 아니게 되어 버렸다. 반에서 선생님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도 아니었다. 반장은, 심부름꾼에 샌드백, 내신점수, 돈 드는 쓸모없는 거...로 말해진다.  
예전에는 ‘반장선거’라고 하면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다. 그러나 이제는 ‘반장선거’라고 하면 “와, 한 시간은 놀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단지내가 나이를 먹어서 일까..?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난 역시반장 포기상태다.  
김민정(구갈중 3학년)

## 내가 반장이라면...

나는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는 작은꼬마라는 별명을 가졌던 "고유성"이라고 한다. 난 8살 때 부터 학현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다녔다. 지금은 00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2이다.내가 11살 때(4학년 때) 반장 선거에 나간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우리 집 아래층에 사는 “김철민”이라는 학생과 친구이자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서 아주 친한 사이였

다. 드디어 반장선거가 되는 날 내 친구 김철민이 장난치고 떠들어서 앞에 나가 벌을 서고 있었다.  
나는 철민이가 벌을 서는 모습이 싫어서 일부러 철민이를 반장에 추천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벌을 서고 있는 아이한테 반장 추천을 하다니... 나는 선생님에게 된통 혼났지만 나는 친구를 구한 것 같아서 무지 기분이 좋았다. 반장에 추천된 사람은 철민

이 하나였다. 하지만 나도 반장을 한 번도 못해봐서 하고 싶은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래서나는 자진해서 손을 들어 선생님께 이렇게말했다. “선생님... 저 두 반장 하... 할래요” 너무떨리는 나머지 말이 헛 나왔다. 이렇게 두명이서 경쟁을 할 줄 알았는데, 또 한명이 자진해서 손을들었다.  
이렇게 돼서 3명이 반장의 자리를 다투었다 투표가 시작했다. 난 투표 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반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이 내말을 잘 듣고, 평상시에사이가 안 좋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떠들면 칠판에 적어 선생님께 혼나니... 정

말 반장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용지에 내 이름을 적어 냈다. 드디어 제일 긴장되는 개표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손발이 떨리고 이렇게 긴장한 적은 처음이었다. 나와 철민이가 제일 라이벌이었고 다른 한명은 10표 이상 차이나서 한숨 놓았다. 나와 철민이의 차이는 두표, 철민이 15표, 나 13표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표 밖에 안 나왔다. 그 한표는 내 이름이 나왔지만 15:14로 반장이 못되었다. 하지만 친구로서 마지막 한마디로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많이 분했다.  
고유성(중 2년)

##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나?

수도권에서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여자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동네 환경의 특성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잘 따르며 언니 오빠들과 잘 어울린 탓인지 아이가 엄마나 아빠보다 훨씬 더 사회성이 강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해가는 편이라 속으로 무척이나 다행이라 생각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었다. 그런 아이가 4학년이 되더니 반장을 하고 싶다며 후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어미인나는 속으로 은근히 꾀재를부르며 당연히 허락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다 보니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었다. 드디어는 햄버거를 삼십 여개나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작년에 반장이된 아이가반 아이들 전부에게 햄버거를 하나씩 사주었는데, 올해는 3명이 후보로 나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어떤 아이가 먼저 반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사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사 주어야겠다는 것이다. 웬일인지 반장을 하고 싶어 매달리는 아이를 보며 별 생각없이 아이가 해달라

는 대로 해주게 되었다. 그 덕분인지 아이는 반장을하게 되었다  
그 후 여러 가지 일로 담임선생님과 만나며 이런저런 상황을 지나게 되면서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반장이 되니까 좋으냐?” “응.”  
“뭐야?” “그냥.....”  
“그런데 엄마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왜?”  
“선거할 때 엄마가 햄버거 사준 거.....”  
“아냐, 다른애도 다 사줬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대화가 이뤄진 다음에 생각이 짧았던 엄마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이해시킨 다음 나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내년에는 전교 회장 선거에나가 보지않을래?” “응!”  
깜짝 놀라는 아이와 친구들을 수시로 만

나며 지금부터 너희들이 힘을 모아 내년 선거를 준비하면 재미있는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포스터와 두꺼운 종으로 샌드위치 맨과같은 모형을 준비하는가 하면 공약이라는 것까지 구상을 해내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그 과정을 아이들은 충분히 즐겼다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아이들은 지기는 했지만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다만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6학년이 되어서는 물론이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내 아이를 포함하여 친구 중에서도 반장이나 회장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이상하기는 하다. 아이들로 하여금 능동적 적극적 학교 참여를 위하여 엄마가 무엇을더 생각해야 할까?  
한경진



# 결산심의, 이렇게 합시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한 실적으로서 재정이 수반된 교육활동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한 해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 합리성을 평가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나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1. 결산시 필요한 자료

결산년도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 세출예산 이용 전용명세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명세서, 계속비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전년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서, 기타 결산심의를 위한 자료.

## 2. 결산서를 보는 방법

결산년도 본 세입세출 예산서와 추경세입세출 예산서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나란히 늘어놓고 함께 보아야 한다. (물론 결산조서와 성질별 조서, 예산집행내역서, 이용 전용 명세서가 있어 차근히 따져보면 더욱 좋다.) 추경예산서는 본 예산서를 변경한 것으로 변동된 예산 내용만 보여 주므로 전체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본 예산서가 있어야 한다.

## 3. 세입결산서를 보는 방법

세입결산이라 함은 학교가 한 해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로 한 계획서인데, 과연 세입예산서대로 교육재정을 확보 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세입예산서와 추

경 세입예산서 그리고 세입 결산서를 나란히 놓고, 관,항,목,세목과 산출근거를 비교하여 변화된 내용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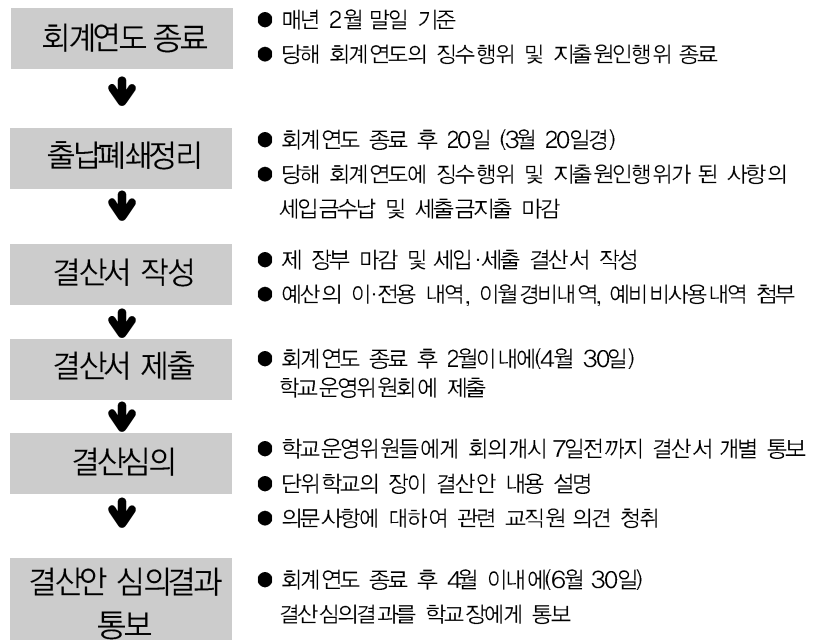
본 예산서나 추경 예산서에서 계획했던 예산항목과 세목이 결산서에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미수납이 있다면 발생 이유는 무엇인지, 사용료나 수수료 등 학교차원의 재정확보 노력은 충분했는지, 예상 못한 수입이 잡혔다면 어떤 원인인지 행정실장이나 관련 교직원에게 질의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4. 세출결산서를 보는 방법

세입 예산계획대로 확보한 교육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한 것이 세출 예산서인데, 세출결산서는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작성한 문건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집행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확인하여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평가해야 한다. 세출결산서도 세입결산서와 마찬가지로 본 예산서, 추경예산서 그리고 결산서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한다.

역시 관,항,목,세목 그리고 산출근거를 세입예산서와 꼼꼼히 비교하여 변화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 예산서에 없던 세목이 나타나는지, 본 예산서에 있던 세목이 다른 세목으로 지출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이후 예산안심의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참고 하여야 한다.

## 결산의 절차



## 5. 세출결산 심의 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

- 사업별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명목의 지출로 예산낭비가 없었는가?
- 불필요한 인력고용, 업무협의회비의 과다편성은 없었는가?
- 예산의 이·전용이 교육과정활동에 대한 예산의 우선 지출 등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외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가?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 그로 인해 단위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는가?

○ 예산집행이 기대한 대로의 효과를 올릴 수 있었는가?

○ 예산의 이월이 있었을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 학교회계의 예결산 심의는 단순히 학교예산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예결산 심의를 통해 학교의 중심인 학생들을 위한 직접 교육경비인 교수학습활동비나 학생 복리비를 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는 활동하여야 한다. 유자숙(남부지회)

## [참고] 학교예결산 심의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편성→심의→집행→결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예산 편성** : 각 부서에 학교장의 방침 전달→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 자료 제출→교장은 상급교육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학교장 또는 행정(사무)책임자 제안 설

명→심의→확정 (중요) 예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장이 본회의에서 예산의 심의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예산집행** : 예산은 가능한 한 변경 없이 집행되어야 하나, 편성과 집행 간에는 다른 변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산을 신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리 예산총칙에 명기하는 방법, 예비비제도의 이용, 그리고 긴급하게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혀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등은 추경안(追更案)을 심의해야 한다.

**결산** : 결산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중요) 결산심의 시에 학교운영위원

회는 의결로써 회계장부 등 안전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산심의시 유의할 점

예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 및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입으로 두말하기,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

## 여당 권력에 굴복하고, 정치 논리에 무릎꿇은 교육논리

2007년 교과부는 수능 성적 공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 교육 과정 파행 운영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09년, 교과부는 수능 성적원자료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고, 우리 교육은 달라진게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19일 교과부는 조전혁(한나라당)의원의 요청에 따라 232개 시군구별로 2005~2009학년도 수능 응시자들의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1994년 수능제도가 도입된 이래 원자료가 전면 공개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에 미칠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수능 성적 원자료란 수험생들의 영역별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이며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를 우려해 학생과 학교 이름은 지우고 성남 분당구 A고, B고식으로 분류해서 언어영역 1등급 X%, 2등급 Y%식으로 공개한다고 한다.

또한 수능 성적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공개 대상은 국회의원에 한정하며 '제공된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학교나 시군구를 서열화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 한입으로 두말하는 말바꾸기 선수,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는 수능원자료 공개를 요청한 조 의원이 2005년 인천대 교수시절 제

기한 수능 원점수 공개 소송에서 서울 행정 법원의 1심(2006. 9) 및 서울고등 법원(2007. 4)의 2심에서 패소 후에도 수능 성적 공개 불가 입장을 끝까지 고수 해왔다. '전국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 교육 과정 파행 운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2007년 교과부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만 장관은 2008년 9월 국회에서 단 한명의 여당 국회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그 동안 고수해오던 원칙을 허물어 버렸다.

교과부의 변명은 궁색하다.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국회의원에 한정하여 공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교육수장이 여당 국회의원의 'YES MAN'을 자처하고 나선꼴이다.

### 보수언론과 모든 언론이 알고 있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교과부의 거짓말

♣ 학생과 학교이름은 지우고 232개 시군구별로 공개하기 때문에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 의 문제는 없다?

1. 원자료 목록에 있는 고교별 학생

수를 통해 해당 고교가 어디인지 유추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고교의 성적도 알아낼 수 있다.

〈동아일보 기사〉

2. 시군구간 수능 성적 결과가 고스란히 파악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일보 기사〉

♣ 연구 목적에 한해 공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1. 수능 원자료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만 연구 목적에 한해 공개된다고 하지만 언론이 보도해 결국은 모든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3월 21일 동아일보 사설〉

2. 열람자는 분석한 자료를 USB 같은 저장장치에 담거나 적어서 외부로 반출한 뒤 발표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한 뒤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정부로서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 서약서를 받고 공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1. '학교와 지역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지키지 않는 다고해서 교과부가 제재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양식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겨레 기사〉

2. 원자료 열람 이후 외부 유출이 가능한 '분석 과 가공' 자료의 범위도 확실하지 않다. 성적자료가 외부로 노출 되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조 의원 측은 "필요하다면 언론사나 학계 등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겠다"는 입장이어서..

〈경향 기사〉

지난달 말 180개 시군 교육청 단위로 일제고사 성적이 공개되어 되었지만 결국 지역별 학력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 했으며 2008년 한 일간지 신문사는 서울의 140여개 학교 성적정보를 수집하여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하는 기사를 보도 하였다.

수능 성적 원자료는 학생과 학교 이름은 지우고 공개하기 때문에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과부가 애써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척하는 거짓말 일뿐이며 희망 사항이다.

일제고사처럼 3등급도 아닌 평균 점수까지 계산이 가능한 수능 성적공개는 전국의 고교를 한 줄로 세우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이는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가 나서서 제공해 주는 꼴이다.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로 인한 부작용은 교과부가 대법 상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과부가 더 잘 알고 있다.

일제고사 성적 공개의 파장보다 더 큰 위력으로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능 성적 공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학력 격차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적 공개가 아니라 학력격차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 진단과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

### Ⅰ 수능 성적 공개 개요 Ⅰ

공개 대상 : 국회의원(보좌관, 비서관 등 관련자 포함)  
 공개 내용 :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원자료, 학교 이름, 수험생 개인정보를 지운 상태에서 공개  
 공개 범위 : 16개 시도별, 232개 시군구별로 분류해 공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공개되며, 재수생 성적도 출신 고교 기준으로 분류돼 공개. 고교 이름은 기호나 알파벳 등으로 구분  
 공개 방법 : 국회의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에서 열람.  
 원자료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분석 또는 가공한 자료만 유출할 수 있음.

### Ⅰ 수능 성적자료 공개 관련 논란 일지 Ⅰ

2005년 공주대 이명희 교수 등 '수능 ·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자료' 정보공개 청구 절후 소송제기  
 2006년 9월 서울행정법원 "2002~2005년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 판결 - 교육부 항소  
 2007년 4월 서울고등법원 "수능 성적 원자료와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자료까지 공개" 판결 - 교육부 항소  
 2008년 9월 안병만 교과부 장관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공개하겠다"  
 2009년 3월 교과부, 국회의원에게만 공개 결정

# 학교 교육의 평가, 일제고사만이 해결책인가?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 그리고 성적조작 파문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학부모의 불안감은 가중 되고 있다. 성적이 꼴찌로 낙인찍힌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으며 더 나은 학교로 이사를 가야하는 고민이 깊어가는 등 온통 나라가 혼란스럽다. 또한 대도시로 전학 갈 형편조차 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와 좌절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그동안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정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낙인찍어 주겠다고 학교를 전국 단위로 서열화하는 일에 앞장 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으로(일제고사)하고 성적을 공개해야 교육격차

를 해소 할 수 있고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일제고사의 필요성을 선전 했던 정부의 논리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일제고사로 인한 부작용과 우려는 2008년 일제고사 반대와 거부의 몸짓으로, 수차례에 걸친 교육학자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 학교 현장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평가 전문기관의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사회적인 공론화나 국민적 합의 과정을 무시한 것을 물론이고 표집 실시 학생수의 30배가 넘는 학생들로 시험을 확대 하면 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 시범 실시조차 없이 일방적으

로 밀어붙였다. 전형적인 부실정책이다. 성적 조작사태는 단순히 평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별 성적이 학교효과인지 그 외에 다른 효과인지(사교육 효과인지) 검증되지도, 검증하지도 않은 채 학원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읍면단위지역의 학교와 서울강남 지역의 성적을 단순 비교, 공개 하여 학교를 서열화 하고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성적 조작 부정사태를 불러 온 근본원인인 것이다. 그러면, 일제고사가 아니면 무엇으로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평가하고 해결 할 것인가를 반문하실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해결방안 문제, 교육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평가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교육과 평가와의 관계: ‘교육을 잡아먹은 평가’



요즘, 많은 분들이 묻는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점수가 없으면, 경쟁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점수를 매겨야 정확하다고...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의 상상력은 죽었다.

**장면1.** [기자: 왜 시험시간인데, 학생들에게 문제에 대해 알려주죠?

[핀란드 교사: 시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식이니까요. 학생들이 지금 당장 모르는 것은 괜찮지만, 시험을 통해 더 잘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진 않지만, 어디가 틀렸는지 말해주는 거지요. 여길 다시 해봐하고요.

**장면2.** 교사가 시험지를 나눠 주자, 인디언 아이들은 교실 뒤로 가서 둥글게 모여 앉았다. 당황한 교사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냐고 묻자, 한 아이가 대답했다. “우리는 힘든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모두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인디언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법》중에서

**장면3.** 학생 모두가 가림 판으로 자기 시험지를 가리고 답을 쓴다.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모르는 문제를 정확히(!) 틀릴 뿐이지, 알게 되지는 않는다. 얼마나 알고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등수를 매기는 것이 시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이다.

요즘의 교육현실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낯부끄럽지만... 하지만 원래, 교육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평가는 좀 더 적합한 교육을 하기위해, 학생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π.π

학생이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학습하지 못한 부분, 또는 잘못 이해한 부분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평가다. 어떤 학생이 학습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학생을 다시 보충지도하여 학생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평가를 한다.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를 하는 것이지, 얼마큼 모른다고 통보하기 위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결과 다수의 학생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지도법이나 교육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운영방식이 무엇인지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이 평가를 하는 목표이고 평가의 역할이다.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그 학습결과를 평가하고, 다시 평가결과로 다음 학습을 계획하는 것이다. 평가는 학생을 더 정확히 돕고, 발전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수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 결과로 학생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학생의 성장발달상황을 통지하는 것이 교육과 평가의 올바른 관계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공장의 생산품을 검사하듯, 학업성취도로 학생을 평가

하려 한다. 학교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때, 누가 평가하든 상관없이 학생의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구에서 선다형시험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관료들은 이런 평가방식에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그래서, 평가를 위해 교육이 존재하고, 평가를 위해 학생이 존재하게 된다. 의사를 위해 환자가 존재하고, 국회의원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과같은 상황이다. 배보다 배꼽이 커져 버렸다. 배꼽이 배를 잡아먹었다. 학생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가 학생과 교육을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평가결과가 학생에 대한 서열화, 교사와 학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일제고사는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 학생을 지원한다는 평가의 교육적 목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가 2008년 일제고사 준비에 쏟아 부은 돈은 160억이다. 그 돈을 평가가 아니라, 교실에 또는 교육복지를 위해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두고두고 남는다.

일제고사와 같은 평가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시험에 나올만한 것만 골라 가르치는 것이 교사에게는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이런 시험대비 교육이 교육 관료와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성적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일제식 반복수업은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사고능력, 학업성취능력은 저하되더라도,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학업성취 성적은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시험주도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평가가 교육을 잡아먹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학생은 상품이 아니다. 단지 학업성취도로 학생의 서열을 매기거나 불량품을 골라내려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교육학자 아이즈너는 학교의 평가는 진정한 [참평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지적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제, 결과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집단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평가, 다양한 답이 존재하는 평가, 그리고 단편적인 사실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를 진행하지는 주장이다.

이미,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나 학습의욕은 최저 수준임도 잘 알려진 일이다. 우리의 잘못된 평가는 학생들에게서 배움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다.

學而詩習之(학이시습지)면, 不亦說乎(불역열화)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부라 재미있으려면, 평가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교육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냐고?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노력하면 가능함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게 안내하는 곳, 평가가 아니라 지원하는 곳이 학교여야 한다.

내가 닳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학습의욕과 목표가 생겨난다. 가능성이 보일 때, 적극성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가 학생/청소년들에게 평등과 희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은 일제평가가 아니라, 학생인권과 교육복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영주(서울묵초 교사)



# 학습부진아, 어떻게 할 것인가?



〈핀란드 교육의 성공〉이라는 책에서 후쿠다세이지는 핀란드 교육의 핵심 정신을 “교육이라는 이름의 보트에 탄 아이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물에 빠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교육의 정신은 무엇일까? 아마도 “교육이라는 보트에 탄 아이들 중에서 다 빠져죽더라도 무관하니 한 명이라도 명문대에 상륙시키자”가 아닐까?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현실이 무엇인지다 짐작할 것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왜 중요한가?

첫째, 헌법이 선언하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국민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함이다. 그런 점에서 학습부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중요하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 소득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보아도 효율성이 높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단 한 아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사회적 낙오자가 발생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초기 투자로 해결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크다는 연구도 있다. 넷째, 무엇보다 아이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공부 때문에 좌절하고 자존감의 손상을 입고 있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일제교사를 통해 학습부진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문제점을 더 부추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학습부진의 문제는 뿌리가 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과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정책

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고 학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진단의 문제이다. 한 번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문항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아이들을 분류하는 것은 정확도와 타당도의 문제가 있다. 둘째, 지원체제의 문제이다. 1주에 1시간이나 2주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교사가 담당해야 할 학생 수도 많은 데다가 예산지원도 부족하고 업무적으로도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학습부진아 업무가 기피업무가 되고 있다. 한 예로 영재교육 지도수당은 학습부진아 지도 수당의 4~5배 수준이다. 셋째,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문제가 있다. 방과 후에 별도로 남아야 하는 것에 대해 기피하고 낙인효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넷째, 허위보고의 문제가 있다. 학습부진아가 있는 학급 담임이나 해당 학교에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허위 보고에 대한 유혹이 있다. 다섯째, 학습부진아의 경우 집안의 보살핌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수준별 수업으로 인해 학습부진아의 경우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우수반의 경우는 별 상관이 없지만 하위반의 경우는 더욱 학습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일반 수업에서 개별화 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일제식 수업의 구조하에서 개인의 학업 부진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사각지대의 문제가 있다. 기초학습부진아보다는 잘 하지만 실제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이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지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부진아의 학습권을 교육기본법에 명문화하고,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학습부진 해결에 두어야 한다. 미국은 초중

등교육법 1장에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핀란드는 학습부진아의 특별교육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보장하고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습부진아가 특별보충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여 교육기본권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밀한 진단과 판별이 필요하다. 일제평가는 아주 빈약한 도구이다. 학력과 함께 정서적 측면이나 학생의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회적인 평가가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책무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는 지도 교사나 학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경우 비용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셈이다. 학교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과에 따른 책무성보다는 과정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된다면 학습부진아와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묻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을 강제로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반대로 학생의 입장에서 진단평가를 언제든지 받고 그에 근거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습부진아를 도울 수 있는 특별지원교사를 확충하고 가급적 담당 학생수를 줄여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자원의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의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돌봄과 학습의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 체제가 좀 더 확장되어 지역아동센터와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수준별 수업을 재검토하고 수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정말로 수준별 수업이 의미가 있으려면 무학년제로 더 세분화된 방식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상급학년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초등과정에서는 통합적인 학급 내에서 함께 배우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본적으로 개별화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수업방법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수업을 통하여 해결하고 필요하면 나머지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열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주요 과제
국회	학습부진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정립 교육과정 재구성 특별지원교사 제도 마련
시도교육청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 특별지원교사 채용 및 운용
지역 (자치체 및 지역 단체)	학습부진아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 구성
학교	학습부진아 특별보충교육 실시 특별지원교사 활용
교사	수업방법 개선 나머지 공부, 일대일 결연 학습부진아 업무 담당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교장공모제

### '내부형' 폐지 추진 교과부, 조사결과 쉬쉬

최근 교과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자격증제에 기반한 교장 임용방식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학교에 한하여 개방적 임용체제를 적용할 것이며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자격증 제도를 유지할 방

침이라고 한다. 오마이뉴스(2009.3.23)에 의해 내부형이 초빙형에 비해 훨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조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교과부의 정책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교과부가 연구진에 의뢰하여 교장공모제 시범실

시 효과를 분석한 자료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경로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교과부는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교장공모제에 대해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 평가에서 이미 내부형이 우세하다는 것이 판명

이 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제도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기존 승진제도나 초빙형이 우수하여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선택받을 것이고, 그 반대라면 도태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권을 단위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교장임용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관료적 통제라 볼 수 있다.



## ✿ 3월 지부 · 지회 활동

### 거제지회

#### 2009년 새학기 학부모교실 잘 마쳤습니다.



봄기운이 스멀거리는 2월 끝자락에 참학거제지회는 매년초 진행해 오던 새학기학부모교실을 개최하였다. 초등신입생을 둔 학부모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학교 참여할것인가와 아이들이 겪어될 학교생활 교육과정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경주지회

#### 새내기 학부모 내공키우기



"새내기 학부모 내공키우기"라는 제목으로 이남수 선생님을 모시고 농어민회관대연수관에서 70여명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여 잘 마쳤습니다. 토요일이라 많은 학부모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남수선생님의 꼼꼼한 강의 준비와 김성대선

생님의 생생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음번에 요일을 잘 조절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경진지회장님이하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광주지부

#### 학부모 총회에 참교육학부모회가 나섰다



지난 3월 18일~20일에 금호초등학교, 만호초등학교, 남초등학교에 학부모신문 호외 배포작업을 했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학부모운영위원, 급식점검, 학부모총회, 독서모임 등)의 설명과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실

등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학교활동 적극 동참하자는 내용의 호외를 배포했습니다. 반가운 회원님의 얼굴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있어서 기쁠습니다.

### 고양지회

#### 신입회원 만남의 날



지난 3월 13일 고양지회에서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새내기 학부모교실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신 분과의 만남. 우리회 활동영상물을 통해 참교육학부모회 소개를 하고, 지회소개와 소모임 소개, 그리고 선후배 학부모 대화를 통해 짝~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부산지부

#### 친환경토마토따기 체험 행사를 마치고



꽃샘 추위가 발악을 하는 날, '대저 흙사랑 토마토농장'에서 토마토따기 체험과 '구시한 퇴비'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토마토를 잘 안먹는다는 친구조차 밭에서 직접따 먹으니 맛있다하고, 껌묵과 쌀겨, 부엽토로 직접 비벼 만든 퇴비는 집으로 돌아가서 화분에 고추한

포기 심겠노라며 다들 한봉지씩 나눠서 담아 갔습니다. 퇴비만들기를 준비하는 동안 긴 줄로 줄넘기도 하며 이른 봄소풍~~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5월 손모내기 체험 행사도 기대하세요.

### 양주지회

#### 3월 회원 만남의 날



올해들어 첫 만남이어서인지 반가웠습니다.

자기 소개시간,북아트 시간..부침개 먹으면서 정담나누는 시간..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자리에서..꽃피는 봄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

여.. 4월 2일 야유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모두 모두 함께 감사다!!!



서울지부

### 위탁업자들의 로비에 흔들리는 학교, 학교급식



3월10일 서울시 중고등학교교장회가 서울시교육위원들에게 학교급식직영전환을 멈춰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직영전환 추경예산안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장회와 교육위원회의 압력에 밀려 학교급식법에 따른 직영전환 추진 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직영전환 실적이 가장 더딘 것은 교육청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학교장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하여, 수년간 학교급식개선노력을 기울여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중등교장회의 비교육적인 태도와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자 3월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직영전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수원지회

### 제3차 정기총회를 열다



지난 3월 24일 저녁, 수원지회가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수원지회는 참교육을 수원지역을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활동이 미약한채 결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회원들이 모여, 2009년도에는 새롭게 재정비하여 왕성한 활동을 위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만들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정기총회에서 지회를 이끌어갈 임원으로 정연훈 지회장, 송원찬 부지회장, 김문경 사무국장, 신귀희 감사가 선출되었다.

수원지회는 향후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 학교운영위원회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안동지회

### 회원 만남의 날을 다녀와서



모처럼 덩굴덩굴 할 수 있는 일요일 늦잠의 유혹을 뒤로 하고 아침부터 분주하였다.

엄마랑 함께하는 봄나들이에 신난 딸아이는 재빨리 제것을 챙기는데, 질풍노도의 이유없는 반항기인 아들에겐 아직 공식적인 컴퓨터 게임과 늦잠이 못내 아쉬워 툭툭거렸 대박상 친구들 만나선 언제 그랬느냐는 듯 너무 시끄럽고 잘놀이 함께 한 회원분들에게 민망하더니만..)

바닥이 오뎅탕 끓이기에 적당한 큰 냄비도 돌 챙기고 커피끓일 주전자까지, 일화용 그릇들에 김차까지 잘라 담고 나니 짐이 한보파리다. 아직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좋은 봄날씨를 여유롭게 바라보며 함께 간 친구들과 바짝 말라버린 개울가를 보며 올 한해 농사 걱정과 뒷좌석을 차지하고 변성기 목소리로 마구 수다를 떠는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를 엿들으며 도착한 영주 무섬마을.

외나무 다리가 얇은 강물위에 걸쳐져있고 강둑을 따라 이십여호가 나즈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마을아래 웅기종기 모여있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 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왕래가 있었던 것 처럼 마을경치가 눈에 익었다.

어렸을 적 외갓집에 갈 때 건너던 외나무 다리 때문이었을까.

지금 내 나이보다 더 젊었을 엄마의 손을 잡고 건너 던 그 외나무 다리. 겨울엔 찰랑거리는 물이 얼어 미끄러워 엄마 손을 더 꼭쥐었던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넓적하고 높다란 다리만 봐온 아이들에게 외나무 다리가 그저 외줄타기 게임처럼 신기하기만 한 모양이다. 줄지어 조심조심 한 걸음씩 나아가더니 중간이 떨어져나가 더 못가니 못내 아쉬운 가보다.

사실 내가 더 아쉬웠다. 그 다리를 내쳐 건너 산모퉁이만 돌아가면 때문은 머리수건을 두르고 정지한 커다란 가마솥에서 먹을 것을 한아름 들고 나오던 할머니가 반겨줄 것 같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볍게 마을 뒷산을 한바퀴 돌고,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마당이 널찍한 한 집을 골라 마치 우리 집안양 대청에 올랐다. 함께 간 친구들은 미리 준비한 육수에 오뎅탕을 끓이는라 분주하고 아직 김조차 올라오지 않는데 여기 저기 베낭에선 각종 술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달달한 모과주에서 거의 장아찌 수준의 마늘 주까지(10년도 더 되어 효험있다는데 목넘김이 영...). 급기야 오크통 숙성 고급 소주까지... 후닥닥 점심을 먹은 아이들은 강변으로 곧장 달려가고 아줌마들은 산야초전문가 대성님을 따라 냉이캐러가고선배는 재미나서 다음에도 예쁜 아줌마들 마이 댕꼬 오란다 ㅋㅋ)카메라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현판을 읽으시며 마을 구경에 분주하신 분들. 뒤늦게 박명배 가족이 도착하고 녀석들은 입담에 한바탕 까르르. 차에 내려서도 통 잠이 깨지않는 잠보 공주님 구경에 또 한바탕 웃음. 지회장님이 모두를 모아놓고 마을 유래와 역사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주셨는데 독을 쌓은 김늑, 연암 박지원, 임진왜란.. 낫술 땀에 생각나는 건 없고(애보고는 공부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라 하고는 ㄲㄲ)그래도 큰 수확하나. 웅천의 탐골을 보고 남은 오뎅탕에 막걸리 한잔하자고 웅천 어디쯤 멜리꼬리 고향의 향기 물씬 풍기는 큰 느티나무 아래에 전을 펴고 앉았다. 함께 한 회원들 소개도 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얘기, 새로 만난 담임 이야기도 나누고... 내쳐 막걸리가 몇병만 더있었다면 오후들어 불기 시작한 봄바람이 더 사납지만 앉았더라면 일제고사나 학교에서의 아이들 인권문제 ... 좀 더 강도 높은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오갈 수 있었을 텐데...

아 봄 날을 간다 라고 아쉬움이 남았지만 어디 오늘 하루 뿐이라. 지회장님 말씀처럼 다음에 산으로 들로 나물도 뜯으러 가고 또 다시 모여 수도도 떨고 그러다 보면 엄마들 힘도 세지고 참교육에 대한 열정도 더 튼튼해지리라 ... 다음엔 더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다음엔 더 많은 엄마들이 단돈 만 원으로 뽕빼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포비



## 사람향기 바람따라 ● 신을희



최근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오래 동안 머무르고 있는 시 두 편이 있다. 짙은 가을에 나에게 꼭 맞는 시이다. 그중 한 시의 첫 구절인 'This is no country for old man'은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첫 구절을 가지고 두 명의 6학년 학생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방학한 뒤에 마무리 하자고 했다.

'Sailing to Byzantium'은 이상세계와 상징주의로의 진입단계를 나타내고 있고, 'Byzantium'은 현실의 갈등을 초월한 예술적 이상세계의 상장을 표현한 각각 다른 두 개의 시이다. William Butler Yeats가 61세에 창작한 시로 그는 “내가 만약에 과거의 한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비잔티움 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그 년대는 구체적으로 AD 535년경이라고 했다.

이 시기를 다시 세분화하면 성 소피아 성당이 문을 열기 직전이고, 플라톤의 아카데미가 문을 닫기 전인 시기이다. 이 시대에 비잔티움은 예술이 굉장히 발전하였고 종교와 예술이 실생활에 일체가 된 시기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가을에 무척 분주하다. 가을 분위기에 맞추어 좀 더 사색을 즐기려는 한가한 마음과 얼마 남지 않은 꾸러기-샘의 짧은 기간을 어떻게 더 보람되게 만들어 나가야할지 괜시리 바쁜 마음으로 짝차있다. 봄기운이 돌 때부터 두 학생과 함께 교과서를 한 장씩 메꾸어 가던 나는 이제 학생들과 한마음이 되어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맞이하며 현재에 어떤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때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한계에 머무를 때, 항상 기쁨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듯하다. 내가 가장 보람을 느끼며 가슴으로 따뜻함을 가지게 하던 꾸러기-샘의 짧은 기간은 영원한 완전성을 추구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자 한계인 듯하다. 'Byzantium'의 1 stanza에서 'A starlit or a moonlit dome disdains' (별빛 받은, 달빛 받은 둥근 지붕은 경멸한다.)는 정지의 세계와 변화의 세계가 대조가 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Dome은 어디서 봐도 모양이 똑같은 건축양식으로서 완전성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비잔티움문화의 기본 특징은 완전성인데, 그 완전성이 현실세계를 경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갑자기 흘러들어오는 EBS 방송에서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국가 정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한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Byzantium'이 'Dome'을 찾으려는 노력에 과연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관악구의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무산 될지 걱정이다. 늦가을이 주는 아쉬움과 좀 더 메꾸어야 할 부분이 어딘지 하는 더욱 낮은 자세로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나는 새로운 새가 되어 나의 영원한 'Dome'을 찾을 수 있을까?

현재 저는 관악구청소속으로 Senior 클럽 꾸러기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줄어서 2월까지 3명의 학생을 만났는데 현재는 4학년 학생 1명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교육과 먹거리 생협 활동을 했던 것이 저에게 훨씬 더 풍요로움을 갖게 하며, 여러분도 현재의 활동이 10년 후에 어려운 난관에서 큰 생활의 지침이 되리라 믿으면서 보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함께하는 참교육학부모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신을희 회원은 89년부터 강남지부 회원이었으며, 현재 관악구청 꾸러기교사로 활동하시는 선배활동가입니다.

## ● 선배에게 듣는다⑤ 김현옥(14대 회장)

# 지금 우리 교육은 최소한 예의도 없다

지금 생각하면 2006년은 참여정부가 임기 말을 향해가면서 레임덕 현상에 빠져든 한 해였던 것 같다.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2005년 재개정이 된 이후 2006년 벽두부터 보수권과 기득권 그리고 수구 언론을 중심으로 단식과 삭발을 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학교를 망치는 것이라면서 야단을 떨었다. 그 때 정치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 대치국면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끝 모를 싸움 속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내용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 제도 도입 무용론이었다. 야당(한나라당)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줄기차게 요구할 정도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실했던 반면 개혁지지 기반이 약한 참여정부가 휘둘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도 4월 남녘에는 벚꽃이 한창이었다. 당시 참학 전국회장 보궐선거가 있었다. 첫 직선을 도입하여 인터넷 투표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후보 유세가 있었지만 단독 출마였기 때문에 전국 활동가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 수준이었다. 첫 유세를 충남 지부에서 했는데 진주에서 함께 간 진주 서은선 부지회장과 신현숙 사무국장 그리고 나를 포함하여 모두 9명이 참석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외 경남, 경북, 수도권, 전라 지역에서 유세를 했는데 광주와 대구를 제외하고 사무실이 모두 아담했다. 그 공간은 활동가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일

구어낸 곳이었다.

선거가 끝난 뒤 기다리고 있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개혁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켰지만 교육정책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수업 확대를 위한 시범 실시와 개방형 자율학교, 혁신형 자율학교 등을 추진하였고 영어, 수학등의 수준별 이동수업 추진과 본고사형 논술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처 등 사실상 고교 평준화 보완책과 소극적인 의미의 고교 선택권 확대 그리고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은 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위탁 급식을 직영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개혁 방향이 모호한 것만큼 교육주체들의 갈등 또한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학부모와 교사로 대별된 입장은 교육정책에 대한 이견으로까지 표출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원정책과 관련한 것이다. 현 정부는 일제고사를 치르고 성적 결과에 따라서 교사와 교장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당시 '교원의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은 이 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으로 제안되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논란의 중심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국회의사당 전방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다반사처럼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진주에서 여의도 농성장이나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던 일이 적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에 항의하기 위하여 2007년 참학 총회준비위원회를 문래동에서 하면서 한편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고인이 된 당시 안동지회 이상윤 총준위 위원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하면서 당대표 면담을 거절당하자 분해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늘 환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활동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절속사 하나가 정책을 좌지우지 할만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사립학교법 재개정 때 알았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개방형 이사 도입이었는데 한나라당이나 사학 재단은 이사 추천권을 학운위나 대학평의회에서 '등'을 넣어서 추천권을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등'이 들어가면 재단 측에서 개방형 이사를 자기 사람으로 심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등'의 단어 하나가 지닌 위력과 상징성은 최근에도 한나라당을 통해서 발휘되었는데 지난해 대학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하면서 기존 논술 고사 '외' 필답고사에서, '외'를 '외'로 고치면서 필답고사 시험을 당연시하면서 사실상 본고사를 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갖추었다. 2006년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 때나 지금이나 갑갑한 교육현실은 똑같은데 지금이 더 심하다는 느낌이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절차라도 밟으려는 최소한 예의조차 던져버린 돌쇠식 추진이 더욱 지치게 만드는 듯하다.



## 안승문의 스웨덴 - 핀란드 교육이야기 ⑪



안 승 문

스웨덴 웁살라대학  
객원연구원  
edu2010@hanmail.net

북유럽은 도서관의 나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구 19만 명 정도 되는 웁살라 코뮌(우리나라의 군같은 기초자치단체) 안에 20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있고, 도서관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를 개조한 도서관이 이동하면서 책을 대출해 준다.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져 누구든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도서관은 국민들이 평생도록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관이요 문화센터라 할 수 있다. 북유럽의 저력은 바로 이러한 도서관 인프라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많은 도서관 중 하나인 웁살라 시립 도서관. 건물의 외형은 그리커 보이지 않지만 탁 트인 넓은 공간의 서가에 비치된 수많은 장서들과, 곳곳에 놓인 테이블과 연람용 안락 의자는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오시기만 하면 편안하게 모실 준비를 하고 있다. 2층에는 널찍한 성인용 도서관이고, 1층에는 유아와 어린이용 도서관이다.

성인 도서관에는 일반 서가, EU 관련 자료실, 인터넷 검색실, 자그마한 강당, CD 또는 DVD 전문 서가 등이 있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 및 인터넷 검색용 컴퓨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스웨덴어나 영어로 쓰인 책은 물론 외국서적들도 상당수 비치되어 있다. 특히, 간행물과 잡지 코너에는 스웨덴의 신문 잡지는 물론 영어권, 아시아, 아랍 등 여러 나라들의 유명 간행물들이 비치되어 있다.

어린이용 도서관에는 유아부터 초등학생들을 위한 서가,

녹음된 책을 읽으며 녹음해 놓은 소리 도서 등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있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소파도 놓여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에 흔히 있는 시험 공부 학습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사람들은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기도 하지만 대개는 대여해 가서 집에서 보는 것 같다. 웁살라에 거주 등록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석에서 대출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한 번에 5~6권도 빌어갈 수 있다. 물론, 반납 기간안에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은 우리랑 같다.

웁살라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처음에는 그 많은 외국 잡지까지 구입해 비치하는 것이 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다보니, 웁살라 시민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잡지 중의 한권을 읽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국제적인 소통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서, 도서관에 책과 자료를 비치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필자는 공공 도서관이야말로 인류가 창안해 낸 기관이나 제도 중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확신한다. 거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어느 이용자도 차별하지 않으며, 이용에 대해서 어떤 댓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너무 많이 이용한다고 탓하는 사람도 없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준비해두고 기꺼이 제공하겠다는 자세로 문을 열고 이용자를 기다린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만든 의무교육이라는 제도적 권위를 업고, 학생들을 '강제로' 입학시키고, 어떤 의도를 담아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습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학교라는 기관과 도서관 사이에는 그런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1세기에 학교는 도서관과 같은 모습과 운영 시스템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정한 어떤 것을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하고 선택하면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가정환경이든 지적 능력이든 어떤 차별도 없이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연령대 별로 배워야 할 것을 정해놓고 12월 31일 생과 1월 1일 생을 다른 학년으로 나누어 놓거나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분리해 놓는 어리석고 부자연스러운 관행도 없어야 한다.

2010년에 있을 지방자치 선거에서 시장이나 구청장 출마 자들로 하여금, 땅을 파고 큰 도로를 내는 개발공약 대신 관내 동사무소를 도서관으로 바꾸겠다거나 더 많은 책을 사서 도서관 마다 가득 가득 채우겠다는 공약을 하도록 요구하고 설득해보면 어떨까?

갖가지 민원서류 업무는 자동화 기기나 편의점에 맡기고 모든 동사무소들을 마을 도서관으로 바꾸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도서관 직원처럼 주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는 허황된 꿈일 뿐일까?

이제 우리는 대운하 같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도서관을 세우는 데 막대한 예산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들은 낡은 구습을 버리고 도서관 같은 정신과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도, 동사무소도, 교육청도, 정부까지도…….

## 학부모일기

## 2009년 3월 꽃샘추위가 온 어느 날에...

1남 3녀 중 막내인 나를 가장 이빠하 시는 친정엄마는 팔순을 넘기시고도 그럭저럭 건강하셨는데 작년 말부터 건강이 부쩍 나빠지기 시작해서서 이젠 간신히 집에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뿐이 못하시는 상태가 되었다. 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자주 못하였고 어쩌다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고도 늘 '나' 사는 걱정이 앞서셨다. 애들은 학교 잘 다니니? 이서방 일은 잘 하고 있나? 시어머니는 잘 계사냐? 동서 건강은 좋아졌냐? 등 기력에 부친 목소리로 늘 내 걱정이셨다. 다른 자식들한테 전화해서도 그러셨겠지..... 몸에서 진이 모두 빠져나가 기력이 쇠잔해 지셨

다고 하신다.

마흔이 넘어 나를 늙둥이로 낳으시고 엄마는 나를 시집보낼 때 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한다고 자신을 다잡으며 사셨다. 막내 시집도 보내기 전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결혼 할땐 엄마는 너무나 건강하셨었다. 엄마가 평소 생각한 대로라면 가능한 일찍 결혼시켜야 하는데 엄마는 내가 결혼하는 걸 섭섭해 하셨다.

스물일곱 말에 결혼을 했고 그 당시에는 그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이른 것이 아니었는데도 엄마는 더 있다하라 했다. 결혼하는 내가 섭섭하셔서 사위감도 이빠하시지 않으셨다.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다. 첫 아이 낳을 때 엄마가 계셔서 큰 위로가 되었고 새삼 고통 속에서 나를 낳아 길러주심을 감사할 수 있게 그때까지 내 곁에 있어 주심이 감사했다.

엄마는 또 그러셨다. "아유 내가 바다 학교 입학 할 때 까지 살겠냐?" 그 말을 큰 아이 볼 때 마다 하셨고 나는 그 애기가 너무 듣기 싫었었다. 그리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나니 "아유 내가 바다 장가갈 때 까지 살겠냐?"라고 레퍼토리를 바꾸셨다.... "엄마, 레퍼토리 바뀌었네...? (째죽) 이제 그 살겠니 애긴 그만 좀 해요. 진짜 듣기 싫어요." 결혼을 하고 큰 아이가 중학교 입

학과고 둘이나 점점 커가고 있는 데에도 나는 늘 엄마에게 막내터가 줄줄나게 버릇없는 말투로 말한다.

그런 나에게 엄마는 언제나 내 걱정만 늘어 놓으셨다.

그런데 이젠 엄마의 그 걱정소리도 가냘픈 지셨다.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힘드네 왜 왔어?" 이시다.

엄마가 언제까지 하늘아래 같이 계서 줄지 떨리고 안스러운 마음이다.

빨리 기력을 회복하셔서 엄마의 귀찮은 걱정소리를 듣길 바라며 엄마 보러 가는 전철에서 살며시 눈을 감고 옛날을 더듬어 본다.

문항재(파주지회)

## 광양지회(준)

## 광양지회(준) 소모임 아름다운 변화의 가능성

2007년 12월 광양YMCA어린이집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폐원을 통보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그 불합리성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폐원철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학부모들의 모임이 지금 우리회 소모임의 모태이다.

가정이라는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 오직 내 아이와 내 가정을 위해 살다 아이가 차츰 성장해 감에 따라 가정에서 훌쩍 세상 속으로 뛰어 넘어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자신에게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욕구 표출의 출발선에 소모임이 함께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인생과 사회전반에 걸친 책을 함께 읽고,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살아온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고 교육, 환경, 먹을거리 등 당장 직면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학습 해 나갔다. 그 안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물론 세상을 비판하고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모든 회원들은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합일점을 찾은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공동의제가 제안되고 교육운동의 필요성과 교육운동단체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그리고 2008년 참교육학부모회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준비모임을 결성 교육의 변화를 꾀하고자 소모임이 그 주축이 되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2009년 현재, 기존의 교육, 독서지도, 환경, 사물소모임과 더불어 회원들의 요구가 확장됨에 따라 영어와 볼링 소모임이 가세하여 여섯 개의 소모임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환경개선과 공공성을 상실한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소모임, 무분별한 책의 홍수 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독서를 근간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고민하고 모니터링하는 독서지도 소모임, 왜곡된 영어 교육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주성 회복과 올바른 영어교육 풍토를 조성하고자 힘쓰는 영어소모임, 환경오염, 부의 불평등, 건강한 먹거리 등 당면한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는 환경소모임,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보존을 위한 실천활동으로 사물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물 소모

임,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건강한 내몸 가꾸기와, 밝고 긍정적인 사고의 확장을 유도하는 볼링소모임 등 여섯 개의 소모임이 우리회의 근간을 이루며 활동 중이다. 모든 소모임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진행한다. 좋은 글과 시, 음악 등의 묵상으로 정신을 순화시킨다. 서로의 일상적인 생활 나눔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반성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함으로써 다음계획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회복과 좀 더 인간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 모든 소모임은 매월 2회 내지 4회의 정기적 모임을 갖는다. 그 중 1회차는 전체회원들이 필독서를 선정하여 사회전반으로 시야를 확대시키고 자기개발은 물론 변화의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 나머지 정기모임은 각 소모임별로 그 영역안에서 학습하고 실천방안을 모

색, 대안제시를 목표로 실행한다.

앞으로도 우리회의 근간은 소모임이다. 큰과제 해결, 소수 몇몇 전문가의 목소리만 담아내는 시민운동은 한계에 봉착한다. 낮은 공동체 의식과 저조한 개인의 참여 또한 생활운동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함에 따라 우리회는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 훨씬 낮고, 깊게 생활 속으로 스며 들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흡수하고 확대하고자 연대하며 통일을 이끌어 낼 것이다. 광양지회 6개 소모임은 잘못된 교육정책에 끊임없는 학습으로 교육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꾀하며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더불어 함께 키우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내는 주제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운영위, 급식운동, 상담활동 등의 학교현장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 변화를 주도하고 삶과 배움을 함께 연결하는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시야와 전망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지도를 변경하고 삶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배움의 교육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소모임 활동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 광양지회는 아름다운 변화의 가능성을 소모임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박영실(광양준비위 정책실장)

## 소모임! 나, 우리를 변화시키다

등에 늘 가방을 달고 다니던 시절 서른을 넘긴 여자(?)는 부정적 이미지의 아줌마가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는 뽀글이 머리도, 평퍼짐한 몸매도 입지 않은 즐거운 아줌마일 뿐이다.

어느새 소모임도 계절을 다 보내고 다시 봄을 맞았다. 우리에게 1년이란 시간이 온전히 주어졌다는게.. 바쁜 한주가 모여 어느새 이만큼 왔다는 게, 시간이란 참 빠르다. 매일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람 사이인데 어찌된 일인지 생각이 모이기 시작했다.

겨우 일면식에 아는 사람 없이 아이 이름을 앞세운 만남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게.. 그다지 좋지 않은

머리에 인물과 이름을 맞추고, 아이의 이름을 맞추고.... 이름을 알게 되고 사람들과 일상을 나눌 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 다음엔 모임을 안 했음 했던 적도 있었다.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 않은 그냥 즉흥적이고 무계획한 나지만,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또한 나를 위해 10년 만에 책을 처음 사보게 되면서 '밥, 국, 반찬...'의 경계를 넘는 직립보행의 사피엔스(?)의 뇌를 갖게 되었다. ㅋㅋㅋ...

책꽂이에 줄을 서서 꽂혀 있는 책들을 볼 때면 언제 내가 읽었는지 아득해지면서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읽었다는 게 흐뭇해 할 때가 있다. 안 읽던 책

도 책이지만 회원들과 만남은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을 뒤 돌아보게 했고 작은 내 가정안에 서만 관심과 애정이 멈춰 다른 가족들을 배려하지 못한 일에 조금씩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몇 권의 부모 교육서적을 읽으며 나를 보완해야 할 점도 있지만 아이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시간이 지난 요즘에야 좋은 엄마 흉내내기에 급급했던 걸 느끼게 되었다.

전엔 아이의 장단점을 써보라고 하면 기억을 더듬어 잘했던 모습을 찾곤 했다.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생각하니 어제 어떤 일이 나를 즐겁게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야 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

게 되었다. 가슴으로 남의 아이도 아닌 내 아이를 안아 주는 방법을 이제야 배우는 엄마지만 매일 매일이 즐겁다.

한가히 운전을 할 때면 나에게 물어본다. 내가 배움이 좋아서 하는지 아님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지? 둘 중에 하나면 어찌고 아니면 어찌든... 그냥 부르면 발걸이 가는 걸.. 뒤도 옆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뒤에도 옆에도 함께하는 가족이, 이웃이 있다는 걸 아는 나는 외롭게 앞만 보고 가는 바보는 하기 싫다. 내가 기다린 서른 이후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수민(사무국장)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강호순 사건 보도와 용산 철거민 참사 보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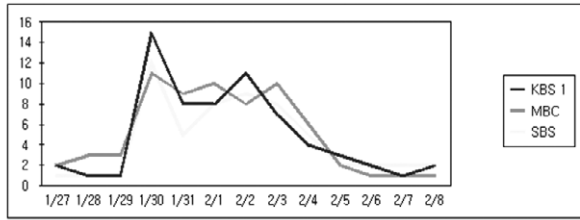
최근 경제 불황과 그로인한 국민적 불안감 증대, 미네르바 구속, 미디어법, 금산 분리완화법 등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용산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시기와 맞물려 경기 서남부 지역의 실종 여성을 연쇄 성폭력 살인한 피의자 강호순이 검거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두 개의 이슈가 생성되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청와대 행정관은 이메일을 통해

- △사건 담당 형사의 인터뷰 적극 협조
- △드라마CSI와 경찰과학수사팀의 비교
- △수색에 참여한 전의경의수기 등

구체적인 홍보지침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보냈다(오마이뉴스, 2/11자)고 한다. MB 정권은 강호순 연쇄성폭력 살인사건(이하 강호순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으로 수세국면에 있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고, 이로 인해 공권력으로 인한 용산 철거민 참사가 더 큰 권력으로 문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선 강호순 사건 보도와 용산 철거민 참사 보도를 비교해 보면, 강호순 사건 보도 총량은 KBS1 27.1%, MBC 30.4%, SBS 29.5%이며, 용산 철거민 참사 보도 총량은 KBS1 5.3%, MBC 8.2%, SBS 7.2%이다. 이것은 유영철 사건 보도량(KBS1 17.5%, MBC 13.9%, SBS 15.6%)과 큰 차이를 보인다.

강호순 사건과 용산 철거민 참사의 보도 순위를 비교해



방송사별 강호순 사건 일일 보도량

보면 강호순 사건 보도가 용산 철거민 참사보다 앞서 보도된 회수가 총 15회 중 KBS1 13회, MBC 11회, SBS 10회 보도되었다. 뉴스의 타이틀도 강호순 사건은 KBS1 4회(1/30~2/2), MBC 5회(1/30~2/3), SBS 3회(1/30~2/1)로, 용산 철거민 참사는 KBS1 1회, MBC 2회(2/4,5), SBS 0회 보도되었다. 그러나 과거 유영철 사건은 KBS1, MBC, SBS 모두 2회(7/18, 19)로 그쳤는데, 당시는 용산 미군 기지 이전, 행정수도 이전, 이라크 파병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한정된 기사수를 가지고 다양한 뉴스를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강호순 사건이 용산 철거민 참사보다 양적으로나 뉴스의 중요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KBS1이 1회 타이틀 보도한 1월 28일 기사는 검찰이 망루에서 흘러내린 정체불명의 액체를 용산참사의 화재원인으로 추정한 보도로, 명확하게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추정보도하고, 검찰 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비판적 감시기능과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한편 강호순 사건 보도는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 가십

성 보도, 추정보도 등을 통한 여론의 끌림 현상을 유발시켰다. 그 중에서 강호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던 1월 30일 뉴스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전의 유영철 사건 보도와는 다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방송 3사는 범죄정보지원계의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과장 등 수사인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건을 입체감 있게 보도했다.

특히 KBS1은 '초동수사 허접' 기사에서 "범행현장의 단서를 통해 용의자의 성향이나 범죄 전력 등을 추적하는 이른바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그린 영화"라며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의 한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이런 보도방식은 과거 유영철 사건 보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청와대 이메일 지시내용과 우연하게 맞물린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출수 없다.

이런 의구심이 이번 용산 철거민 참사 보도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 최근에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재판에 대해 이메일로 주문했다는 사실도 접하였다.

국가 권력이 자기 성찰 없이 정권에 불리한 사회 이슈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법이나 언론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권의 비호 세력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왔다. 방송언론이 수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의 저력을 꺾는데 일조하지 않고, 다양한 여론 형성의 주체로서, 권력의 감시 주체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할 것을 기대한다.

## 장애인방송권의 규제일몰제 적용,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장애계가 규제일몰제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1월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규제일몰 적용 대상을 의결하면서 장애인의 방송권을 내용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를 규제일몰제에 포함했던 것입니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규제일몰로 분류되자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기구가 구성되었고, 기자회견을 비롯한 집단행동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단체들의 행동에 규제일몰제를 관장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부담을 느꼈는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대한 규제일몰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화면을 보지 못하고,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방송을 듣지 못하고,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적절히 시청할 프로그램이 없고,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리모컨 조작 등 하드웨어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과 자막방송, 장면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화면해설을 하는 것도 그러한

지원중의 하나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의 경우 2006년 50% 미만 이었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90%까지 늘어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막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2007년부터 매년 30억 가까이 지원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화통역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의 경우는 지상파방송이 안정기에 들어간 것에 비하여 평균 방송프로그램의 5% 내외로 아직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상파방송의 경우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의 경우는 몇 개의 공익채널과 보도채널을 제외하면 장애인이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지난 해 말 실시된 IPTV(인터넷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IPTV의 경우는 재전송 프로그램과 VOD(주문형 비디오) 등 방송물 시청만이 아니라 데이터방송, 온라인 결제, 학습물 접근 등 부가서비스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싸움으로 장애인의 방송권이 규제일몰로 물리는 것을 막아낸 것은 장애인운동의 소중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에 좋아만 할 상황은 아닙니다. 장애인의 방송권이 규제일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문제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장애인의 방송권과 관련한 정책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정부와 장애인단체간, 장애인단체와 방송사업자간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둘째,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통신 융합이 산업적인 측면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위한 예산 투여는 방송통신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의 방송권이 규제일몰 등 권리축소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융합 과정에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체나 장애인, 관련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문제점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상임활동가  
k646901@naver.com/ 02-783-5551)

Q&A  
상담실

##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우리 아이는 초 6학년 남자아이다. 얼마 전 아이 아빠가 지갑에 돈이 없어지는 것 같다 하더니 어제 일부러 아빠가 지갑에 10만원을 넣어놨는데 아이가 나가고 나서 보니 2만원이 없어졌다. 저녁에 아이를 불러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다. 아이 말로는 자기반 아이가 게임충전카드를 주며 2만원이 들어있다고 해서 받아와서 해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였는데 그 아이에게 따졌더니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없다고 거짓말한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다 줬다고 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엄마가 그 아이 엄마에게 전화할까?” 그랬더니 자기가 받아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래층 집에 놀러갔다가 그 집 아이들이 요새 우리 아이가 돈을 굉장히 잘 쓰고 군것질거리도 많이 사준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다.

그리고 보니 5학년 때부터 내 지갑과 남편 지갑에서 조금씩 돈이 없어진 것 같다. 물론 아이가 말한 그 아이는 저학년 때부터 문제가 많은 아이로 학교에 소문난 아이고 지금도 이러저러한 소문이 많은 아이이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말이 전적으로 믿기지 않는 게 다음날 저녁 다시 우리가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답임과도 얘기해야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사실은 자기가 전부 썼다고 한다. 일단은 혼내지 않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은 받았지만 마음이 정말 찜찜하다. 더군다나, 부모인 우리 부부가 1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도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아이는 학급회장을 맡을 정도로 교우관계도 좋고 나도 학부모 반대표 활동을 하고 있다.

**A** 참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겠네요. 일단

은 아이와 부모님 문제, 그리고 그 반 아이와 아이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반 아이가 어머니 아나 다른 아이들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게 있다면 담임과 얘기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어머니 말씀대로 1년이 넘도록 아이의 행동을 부모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일주일 용돈이 3000원이고 컴퓨터 시간도 철저히 통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나이의 아이에게는 좀 작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나친 통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아이 자신도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처음 부모님 돈을 가져갈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들리지 않게 되면 점점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서 빨리 부모님이 알게 돼서 이것을 멈출 수 있기를 바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아이도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아이를 진심으로 믿을 수 없게 돼서 힘들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진심으로 아이에게 “너를 그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놔둬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신뢰를 쌓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도 무슨 게임을 하는지, 캐시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꼭 해야 하는지, 하면 한 달에 한번 5000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사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복지관의 상담센터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공 : 학부모상담실

## 마음이 움직인 만큼 아프다



얼마 전, 무진장 앓았다. 가까운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뒤 감기와 목, 허리 디스크가 함께와설랑은 죽다 살았다. 열은 펄펄 끓는데 누워 있자니 목과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아픈 몸을 끌고 병원에 갔더니 아뽀! 공휴일인 걸 깜박... 치료도 못하고, 응급실로 갈까 잠깐 고민했지만 돈이 너무 아깝고 해서 약국에서 산 감기약과 파스로 버텼다. 삼일 만에 열도 내리

고 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목과 허리의 통증이 오래 갔다. 집 근처의 한의원을 다니면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아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한의원은 좀 특이한 곳이다. 침리치료를 함께 해주는 한의원이라 해야 하나... 침 놔주는 한의사 따로, 상담(?)해주는 한의사(겉지?) 따로다. 한명이 침을 놔주고 가면 다른 한명이 다가와, 다정한 말투로 왜 아프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다. 왜 아플까 라냐? 처음엔 별 이상한 말을 다 한다 생각했다.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뒤 허리와 목이 아파졌다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 “목이 아픈 걸 보니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봐요. 원래 마음이 움직인 만큼 몸이 아픈 거죠.” 마음이

움직인 만큼’ 이 부분에서 난 그만 가슴이 턱 막혔다. 맞다! 몇 년 전부터 맘에 걸리던 친구와의 결별러움을 이번 여행에서 풀어보고 싶었지만 밤새 술을 마시며 얘기해 봐도 쉽게 풀어지지 않던 이야기... 우리 사이에 어느 샌가 매듭이 참 질기고도 많아졌구나. 절감하며 말을 삼키며 친구를 보니 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 의사가 아는 걸까. 의사가 치료실을 나간 뒤 허리에 침을 꽂은 채 난, 눈물을 닦았다. 다정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무방비로 약하게 하는지, 내 마음이 느끼기 전에 내 몸이 얼마나 정직하게 모든 걸 느끼고 있는지... 똥통 앓고 나니 시력이 많이 약해졌다. 원래 밤에 운전할 때만 쓰는 안경을 낮에도 쓰고 있다. 운전대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안경을 찾아 천천히 안경알을 닦을 때, 내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움직인 걸까 생각하게 된다.

강승희(학부모상담실 상담원)

## “국정교과서를 뛰어넘는 또 다른 교과서를 꿈꿨습니다”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선생님들이  
10년의 연구와 집필 끝에  
만든 국어교과서!

### • 한 권으로 끝내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진 세 권의 교과서를 하나로 묶치고, 말본과 갈래 지식까지 맛있게 버무렸습니다.

### • 몸으로 재미있게 익히는!

말하고, 쓰고, 그리고, 만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하면서 신나고 재미있게 말과 글을 익힐 수 있습니다.

### • 가르치기 쉬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만든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아이들의 지식 발달 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선생님뿐 아니라 부모님도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 〈우리말우리글〉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차례대로 출간됩니다.

꿈꾸며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나라말의 또 다른 이름, ‘나라말아이들’은 오랫동안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호흡하는 책을 만들어 온 나라말의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110-522 서울시 중로구 명륜동 2가 86-25 전화 02-3676-1511~2 전송 02-3676-1513 누리집 www.naramal.kr 전자우편 naramal97@hanmail.net

나라말  
orol



사설

#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교육 지양하고 협동교육으로 공교육을 살리자

작년 10월에 실시한 일제고사와 그 결과 발표로 지금까지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학교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학교는 입학식날도 교과서를 지참하고 밤 10시까지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도 생겼다. 그나마 인성교육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시행되던 초등학교까지 오후 늦게까지 보충수업을 받는다. 그야말로 아이들이 '비친 교육'이라며 거리로 뛰쳐나올 만하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3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단위로까지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수능 점수 공개는 전국 고교간의 점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지금도 좀 더 대입시에서 유리한 학교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인근학교에 성적우수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학교 간 신경전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과부가 말한 것처럼 학교는 뒤쳐지는 학생을 지원하기 보다는 뒤쳐지는 학생을 오히려 학교에

서 몰아내고 있다.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이제 학교 점수를 떨어뜨리는 천덕꾸러기 신세다.

그동안 교과부는 고교·지역별 학력차가 드러날 경우 고교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능 원자료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과부는 국회의원 요청이라는 명분으로 시군구까지 성적자료를 공개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학교 이름과 학생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서열화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군구까지 성적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인별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별 학력 격차는 명확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협동보다는 경쟁을', '지원보다는 차별을' 드러내는 교육정책을 펼쳐왔다. 중요한 교육공약 중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와 '대입시 자율화'는 일제고사 실시, 수능 성적 공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확대 실시

되는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일반고의 격차를 드러내고, 대학은 드러난 격차를 입시에 반영하여 고교 등급제를 자연스럽게 실시 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조금이라도 대입시에 유리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무한 경쟁을 하게 되어 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 북'이라는 양떼가 있다. 평소 소규모 일 때에는 평화롭게 풀을 뜯던 양도 숫자가 많아지면 서 맨 뒤에 있는 양들이 뜯을 풀이 없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모든 양들이 뒤쳐지지 않으려고 내닫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수천마리의 양떼가 성난 파도와 같이 설 새도, 먹을 새도 없이 내닫기만 하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질주해 왔기 때문에 결국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진다 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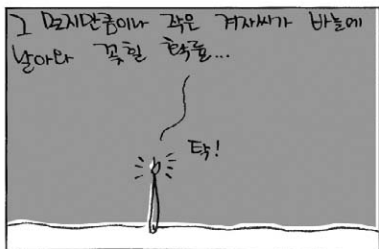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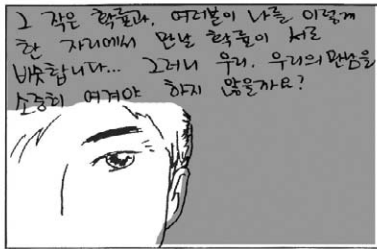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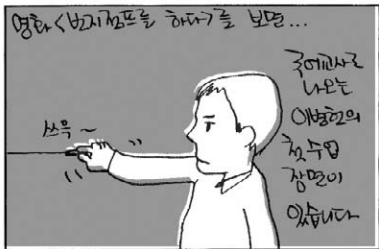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모는 무한경쟁을 막아야 한다.

##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눈빛

본 만화는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중 '눈빛'을 실은 것입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은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뉘어 1년 동안 학생들과 부딪치며 발생하는 상황을 만화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의 허락하에 1년 동안 본지에 연재합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지은이\_이성수  
출판사\_나리밭  
가격\_9,000원



눈빛! 아이들의 눈빛이 오래오래  
반짝이길 바랍니다.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장은숙  
편집위원 송환웅 오명실 이희정 임영희 전은자 장은숙 박은희  
주소 (우)110-10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2층)  
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은숙 수석부회장 송환웅 부회장 김석순 최주영  
감사 임영희 서경자 정복순 사무국장 박은희 상담실실장  
정책위원장 윤숙자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 조직  
위원장 최주영 언론정보출판위원장 송환웅 상근자  
심정숙

서울지부	02)3491-5235	지부장 최정화
	남부지부 02)588-8980	지회장 박현미
	동북부지부 02)3491-5235	지회장 최정화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중
경기지부	031)236-0002	지부장 서애란
	고양지부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지부 031)668-2311	지회장 차경희
	성남지부 031)716-8583	지회장 김윤주
	양주지부 031)864-3958	지회장 정영미
	용인지부 031)281-7696	지회장 이정희
	의정부지부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부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강원지부	수원지부 010-9196-2075	지회장 정연훈
	김포(준) 019-622-5333	위원장 노계향
	원주지부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충남지부	041)576-6677	지부장 김영숙
	천안지부 041)576-6677	지회장 박갑주
	홍성지부 011-420-3979	지회장 조성미
	서산태안지부 010-9599-0658	지회장 김한중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2-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주지부 063)231-9770	지회장 임혜순
	정읍지부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오승주
	목포지부 061)284-6575	지회장 김승진
	화순지부 06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나주지부 016)982-2870	지회장 김정숙
	장흥지부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영암지부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대구지부	광안(준) 019-622-5333	지회장 이희정
	053)751-4070	지부장 양승희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고영호
	경북지부 011-537-0988	지부장 정복순
	안동지부 054)853-5902	지회장 김승균
경남지부	포항지부 054)242-9143	지회장 신현자
	칠곡지부	지회장
	구미지부 010-2366-1365	지회장 김성희
	상주시부 019-289-0839	지회장 김영선
	의성지부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준) 010-7580-8796	위원장 신경진
	055)282-1950	지부장 장귀령
	진주시부 055)748-1352	지회장 김미선
	거제지부 055)638-4130	지회장 최양희
	마창진지부 055)282-1950	지회장 배경희
충청지부	사천지부 010-2225-8384	지회장 박영옥
	김해지부 055)321-8929	배주임
	거창지부 011-9046-3463	지회장 서미경
	밀양지부 010-9955-0148	지회장 하정훈

지문위원회 ● 이규환(지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김지원(법률사무소 청치 변호사)/권정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민남(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생(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김용일(한국해안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시인)/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통일대 여성성취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남부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백상빈(강릉아산병원 정신과 교수)/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춘(변호사)/이기위(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양숙(새틀심리 상담소장)/정홍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희(법무법인창조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현섭(강원대학교 총장)



## 참교육을 위한 희망 릴레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경향신문의 따뜻한 연대



# "힘내라! 참교육"

### 1. 먼저 다가가는 사랑

경향신문을 읽으며, 학생인권증진과 우리 아이들의  
환한 웃음꽃을 피워가는 희망릴레이에 참여합니다.

### 2. 희망릴레이 소개

- \* 참교육학부모회와 경향신문이 함께하는 '참교육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 \* 회원이 **경향신문 한 부를 구독하면 참교육 기금 6,000원이 매월 적립됩니다.**
- \* 적립된 기금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쓰입니다.
- \* 경향신문은 독자확대로 더욱 튼튼한 진보언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 참교육학부모회는 올바른 교육이야기를 대변해주는 경향신문이 있어 든든합니다.

경향신문 구독 중 불편사항 신고: 080-023-8282

### 3. 기금운영

- \* 기금은 온전히 사업에만 쓰입니다.
- \* **본부 50%, 지부지회 50%**
- \* 기금은 지역별로 합산해서 배분하고 배율대로 매월 나눕니다.

### 4. 문의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 및 지부지회 사무실